

목장교재 목자 지침서

<부활의 종교>

4/21(주일) 예배

고린도전서 15:12-13

1.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복음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목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고백은 쉽게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 신앙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누군가 '복음' 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만,

사실 복음의 '완성'은 '부활'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만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이셨기에,

자신이 쓴 책에서 그토록 '부활신앙'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주일 때만 부활을 목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부활의 신앙'을 목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